

발의안 제3호에 찬성
핵심 정보 요약

발의안 제3호가 우리 학교와 의료를 보호합니다.

발의안 제3호는 세금 인상 없이 우리의 학교와 의료, 그리고 지역사회를 지킵니다. 지난 15년 가까이 캘리포니아 주민 중 상위 2% 부유층은 우리 학교와 캘리포니아 가정이 의지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3 퍼센트 포인트 소폭 높은 세율을 부담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무상 학교 급식, 학급 규모 축소, 정신건강 상담사, 아동 의료, 메디칼이 포함됩니다.

이 수익은 연 평균 100억 달러에 달해 주 예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위 부유층에 적용되는 이 세율은 2030년에 만료될 예정이며, 그 대가는 우리 학교와 의료가 치르게 됩니다.

세금 인상이 아닙니다

발의안 3호는 상위 2%에게 적용되는 기존 세율을 연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세율은 부부 합산 신고 기준 과세소득이 약 74만 3,000달러를 넘는 부분에만 적용되며, 2012년 이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이 수익은 지역 학교로 직접 전달되어, 우리가 매일 의지하는 의료와 그 밖의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 쓸 수십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재원은 주정부의 비상 재정 기금에 더 많이 적립함으로써, 경기 침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예산 삭감을 막는 데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엄격한 책임

발의안 제3호에는 예산이 교실까지 확실히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엄격한 책임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지역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로 직접 전달되며, K-12에 89%, 커뮤니티 칼리지에 11%가 배분됩니다.

정치인들은 이 재원에 손댈 수 없고, 다른 곳으로 돌릴 수도 없으며, 관료 조직이나 행정 간접비에 단 1달러도 쓸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공직자는 누구든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든 재원은 매년 독립적인 감사를 받으며, 각 학군은 받은 금액과 사용 내역을 온라인에 공개합니다.



발의안 제3호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상위 2% 부유층이 대규모 감세 혜택을 받는 대신, 그 대가는 우리의 교실과 병원, 그리고 지역사회가 치르게 됩니다.**그들에게는 감세가 필요하지 않고, 캘리포니아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 발의안 제3호가 통과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주의 800만 공립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은 교사 해고, 과밀 학급, 학급 규모 확대를 포함해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는 매년 약 20억~60억 달러를 잃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 발의안 제3호는 메디칼 및 아동 의료를 지원하는 데 쓸 수십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해 줍니다. 제3호가 없다면 가정들이 예방 의료 서비스와 저렴한 처방약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민 약 1,400만 명이 의존하는 메디칼 보장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입법분석관실은 2027-28 회계연도부터 주 재정적자가 매년 약 3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억만장자들을 위한 감세 재원을 마련하려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의료 지원을 삭감했습니다. 발의안 제3호는 이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 줍니다.



발의안 제3호에 찬성
핵심 정보 요약

이 세율은 유권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오직 유권자들뿐입니다.

유권자들은 2012년 발의안 제30호를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예산 삭감으로 약 3만 2,000개의 교사 일자리가 사라졌고, 그 해에만 학군들이 약 2만 건의 해고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발의안 제 30호가 통과된 뒤 해고 사태는 멈췄고, 이듬해 해고 통지서는 약 87% 줄었습니다.

2016년에는 유권자들이 발의안 제55호를 통과시켜, 캘리포니아 주민 중 상위 2%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2030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 세율을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주지사도, 주의회도 이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발의안 제3호는 이 문제를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학교와 병원은 몇 년마다 닥치는 재정 절벽에 맞춰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학군은 다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상담사를 채용하고 학급 규모를 정하며, 주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의안 제3호는 만료 시한을 없앱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투표권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유권자들이 헌법에 넣은 내용은 유권자들이 다시 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호가 끝내는 것은 자동으로 찾아오는 재정 절벽, 즉 몇 년마다 재원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지 않으면 학교가 기본적으로 재원을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1200억
2012년 이후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에 지원된 세입

$100억
매년 평균적으로 확보되는 핵심 주정부 재원

도움이 가장 절실한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과 영어 학습자를 위한 추가 재원, 그리고 특수교육을 위한 24억 달러의 신규 재원

무상 급식, TK, 및 더 많은 혜택
무상 학교 급식, 모든 4세 아동을 위한 TK, 학교 상담교사, 그리고 커뮤니티 학교를 위한 40억 달러 이상의 재원

교사 지원
올해 7억 달러를 보조금, 연수, 그리고 1만 달러의 교생 지원금에 투입

학급 규모 축소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약 24명에서 21.7명으로 감소

더 든든한 비상 재정 기금
경기가 둔화될 때에도 학교와 의료를 지켜줍니다

폭넓은 지지 연합

캘리포니아교사협회 · 캘리포니아교사연맹 · 전미교육협회 · 캘리포니아학교직원협회 · 캘리포니아주 PTA · 캘리포니아간호사협회 · 캘리포니아전문소방관협회 · 캘리포니아학교간호사협회 · 캘리포니아의사협회 ·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액션 펀드 · SEIU 캘리포니아 · AFSCME 캘리포니아 · 캘리포니아여성유권자연맹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의료, 그리고 지역사회를 함께 지켜 냅시다.
이번 11월에 발의안 제3호에 찬성 투표하세요.

Yes on Prop 3 sponsored by education and labor organizations 에서 광고 비용 부담
광고 위원회 주요 후원자: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California School Employees Association
후원 내역 상세 정보: www.FPPC.ca.gov

연락하세요: info@YesProp3CA.com ■ **더 알아보세요:** YesProp3CA.com